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모 지지가 진로 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

정인숙

서정대학교 글로벌융합복지학부 교수

Effect of Parental Support for Multicultural Youth on Career Attitude Determinism: Mediating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In-Suk Jeong

Professor of Global Convergence Welfare at Seoj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급변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미래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태도 결정성을 확인하고,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모 지지가 진로 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에는 출생하면서 노출되는 이중문화에 대한 혼란으로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면 부모 지지와 진로 태도 결정성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가 진로 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매개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MAPS) 8차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다문화 청소년 총 1,229명이 참여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18과 AMOS 17.0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경로 모형 적합도 검증, 경로 모형 계수, 매개효과 검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와 진로 태도 결정성을 향상하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청소년, 부모 지지, 진로 태도 결정성, 이중문화 수용 태도,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determination of the career attitude of multicultural youth, which will be the growth engine of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and to determine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 for multicultural youth on career attitude determination. Multicultural adolescents experience more difficulties in parental support and career attitude determination than ordinary adolescents due to confusion over biculturalism exposed at birth.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career attitude determination and verified the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To this end, data from the 8th year of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MAPS)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ere used, and a total of 1,229 multicultural teenagers in the 2nd year of high school participated in the study.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path model suitability verification, path model coefficient, and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t wa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an integrated program that improves parental support and career attitude determin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 Words Multicultural youth, Parental support, Career attitude determinism,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본 논문은 신한대학교 정인숙 박사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Received 12 Oct 2023, Revised 19 Oct 2023

Accepted 25 Oct 2023

Corresponding Author: In-Suk Jeong

(Seojeong University)

Email: jung620610@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 및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등의 유입으로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2022)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결혼이민자 수는 169,633명으로 2001년 25,182명에 비해 무려 671.6%나 증가하였다[1]. 그리고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245,912명이며, 이들 중 국제결혼 건수는 16,666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8.6%를 차지하고 있다[2]. 이처럼 결혼이민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자녀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현재 행정안전부 기준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275,990명으로(행정안전부, 2020), 2016년 199,161명에 비해 약 38% 증가하였다[3].

다문화 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심리·정서적 지지를 받게 되는데,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 태도 결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태도 결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모 지지의 변인을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부모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진로 태도 결정성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미래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태도 결정성을 확인하고,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모 지지가 진로 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와 진로 태도 결정성을 향상하는 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 지지와 진로 태도 결정성의 관계에서 이

중문화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 태도 결정성 향상을 위한 실천적 개입방안을 마련하고 이중문화 수용 태도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범주는 정부 부처나 법령 외에 국내연구에서도 연구자의 관심과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8)에서는 ‘외국인 주민 자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외국인 주민은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였다. 교육부(2019)에서는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효선(2020)은 광의적인 범위에서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을 본인 또는 가족이 이주의 배경을 경험하였고 청소년기 나이에 포함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5].

다문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적 특성은 가정 내에서의 서로 다른 이중문화의 경험과 이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혼란, 부나 모의 미숙한 언어 능력으로 인한 폭이 좁은 인간관계는 자녀가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는 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 또한, 신체적·외모적 차이에 대한 지각, 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생활상의 경제적 어려움, 소수집단으로서의 소외감, 다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학교·사회 적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학습 부진과 이에 따른 학습 능력 저하 등은 집단따돌림이나 학습중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6].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 해석에 제한점은 있겠으나 2차 자료로서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MAPS)’를 활용하였고 이 조사에서의 정의를 따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이나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들로 국한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2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

자녀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부모의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며, 자녀들은 가족 내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 존재감과 인격을 형성하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가치, 규범, 지식, 기능 등을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이 일어난다[7].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현철 외(2015)의 다문화가정 중단조사 연구에서도 가정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 정체감 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최선에(2017)는 가정 변인으로 부모와 진로 관련 대화를 자주 하는 집단이 진로 역량 개발 점수가 높고, 부모가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을 알고 있는 경우가 학생들의 진로 개발역량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9]. 이는 부모의 자녀 진로에 관한 관심과 지지가 학생의 진로 태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청소년에게 부모 지지는 물리적·심리적·정신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집단이나 조직보다 구성원들이 더욱 강한 유대를 맺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3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태도 결정성

진로 태도 결정성이란 용어는 주로 진로 성숙도라는 용어가 연구 변인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진로 태도 결정성이라는 변인에 대한 연구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진로 성숙도라는 용어의 변인을 함께 사용하여 진로 태도 결정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진로 태도 결정성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성윤희·장은영(2020)은 진로 태도 결정성이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과 확고한 정도, 자신의 진로 목적에 대한 적합한 정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진

로 및 직업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결정된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10]. 또한, 이태혁·이재경(2021)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은 성장기에 경험하는 성취동기와도 관련이 있으며 진로 결정이란 현재 이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기의 진로 태도 결정성은 삶의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진로와 직업에 대해 교육하지만, 일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결과적으로 진로나 진학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4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고,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학문적 합의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중문화 수용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개념을 처음 언급한 노충래·홍진주(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문화 가운데 의복, 음악, 영화, 문화 활동 참여 등과 같은 외적인 측면과 미래 거주 및 진학 국가, 취학 희망의 정도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12].

김서정(2019)도 마찬가지로 문화 적응 유형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하였다[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김서정(2019)과 이은경(2019)의 연구에 따라 다양한 용어 중에서 두 나라 간 이중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개념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용어를 사용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특별히 한국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가지는 긍정적인 수용적 태도를 의미한다.

2.5 부모 지지, 진로 태도 결정성, 이중문화 수용의 관계

주요 사회적 지지원으로 부모 지지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진로 정보와 정서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진로 태도 결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15].

국내의 부모 지지와 진로 태도 결정성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김충기(1999)의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은 인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최초의 단위로써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양식, 인간관계에서의 행동양식이나 자신의 생활 습관 형성에 영향을 주며,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성격이 형성·발달하여 가는 장으로 가정환경에서의 교육적인 가치와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하였다[16].

부모 지지와 이중문화 수용 태도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경숙 외(2010)는 이중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은 한국문화뿐 아니라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 주류문화를 학습하게 되어서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17].

이중문화 수용 태도와 진로 태도 결정성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역량이라는 변인이 보호 변인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중 이기학·한중철(1997)은 이중문화 역량과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있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진로 태도 성숙에서의 5가지 하위요인 중 각각의 평균 점수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진로 태도 성숙의 하위요인들과 이중문화 역량이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18].

육주홍(2019)은 가정 내에서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이중문화를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두 문화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높아지면 자아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분야로의 적응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19]. 김영미·현안나(202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

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지고, 진로 장벽을 낮게 인식하여 진로 결정수준이 높아진다고 밝혔다[20].

3.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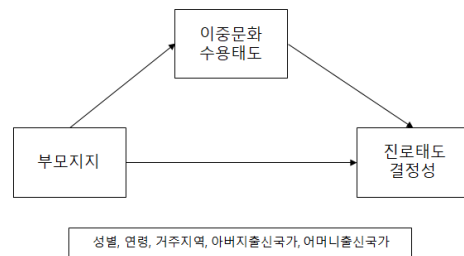
3.1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지지가 진로 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은 2018년 8차년도 데이터로, 무응답자를 제외한 1,220가구(청소년 1,229명, 학부모 1,197명: 총 2,426명)가 참여하여 75.1%의 높은 수준의 패널 유지율을 보인다[21].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총 1,229명이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18과 AMOS 17.0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경로 모형 적합도 검증, 경로 모형 계수, 매개효과 검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와 진로 태도 결정성을 향상하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부모의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매개하는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4. 연구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에서는 전체 1,197명 중 여자가 51.0%(610명), 남자는 49.0%(5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나이는 17세가 88.9%(1,064명)로 가장 많았으며, 16세가 7.5%(90명), 18세 이상이 3.6%(4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변수	빈도	백분율(%)	전체
성별	남자	587	49.0
	여자	610	51.0
연령	16세	90	7.5
	17세	1,064	88.9
	18세 이상 [각주]	43	3.6
거주 지역	서울	117	9.8
	경인(경기도+인천)	302	25.2
	충청 및 강원권	240	20.1
	경상권	280	23.4
아버지 출신국가	전라 및 제주권	258	21.6
	한국	1,107	96.5
	중국(한족+기타민족)	2	0.2
	중국(조선족)	1	0.1
	베트남	2	0.2
	필리핀	4	0.4
	일본	16	1.4
	태국	1	0.1
	기타	14	1.2
	기타	39	3.3
어머니 출신국가	중국(한족+기타민족)	84	7.0
	중국(조선족)	211	17.6
	베트남	25	2.1
	필리핀	311	26.0
	일본	418	34.9
	태국	49	4.1
기타	60	5.0	

다음으로 거주지역에서는 경인(경기도+인천) 지역이 25.2%(302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상권이 23.4%(280명), 전라 및 제주권이 21.6%(258명), 충청 및 강원권이 20.1%(240명), 서울이 9.8%(117명)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출신 국가에서는 한국이 96.5%(1,107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일본이 1.4%(16명), 기타가 1.2%(14명), 필리핀이 0.4%(4명), 중국(한족+기타 민족)과 베트남이 각각 0.2%(2명), 중국(조선족)과 태국이 각각 0.1%(1명)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서는 일본이 34.9%(41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리핀이

26.0%(311명), 중국(조선족)이 17.6%(211명), 중국(한족+기타 민족)이 7.0%(84명), 기타가 5.0%(60명), 태국이 4.1%(49명), 한국이 3.3%(39명), 베트남이 2.1%(2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4.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표 2>와 같다. 먼저 부모 지지의 기술통계는 전체 평균 3.90(표준편차=0.71, 범위: 1-5)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지1은 평균 3.95(표준편차=0.80, 범위: 1-5), 지지2는 평균 3.62(표준편차=0.91, 범위: 1-5), 지지3은 평균 4.11(표준편차=0.76, 범위: 1-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기술통계는 전체 평균 2.92(표준편차=0.42, 범위: 1-4)로 나타났으며, 수용 태도1은 평균 2.39(표준편차=0.67, 범위: 1-4), 수용 태도 2는 평균 3.24(표준편차=0.55, 범위: 1-4), 수용 태도 3은 평균 3.15(표준편차=0.53, 범위: 1-4), 수용 태도 4는 평균 2.90(표준편차=0.75, 범위: 1-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 태도 결정성의 기술통계는 전체 평균 2.71(표준편차=0.67, 범위: 1-4)로 나타났으며, 결정성 1은 평균 2.63(표준편차=0.80, 범위: 1-4), 결정성 2는 평균 2.80(표준편차=0.72, 범위: 1-4)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잠재 변수	측정 변수	평균	표준 편차	범위 (최소-최대)	왜도	첨도
부모 지지	지지1	3.95	0.80	1-5	-0.70	3.68
	지지2	3.62	0.91	1-5	-0.45	3.06
	지지3	4.11	0.76	1-5	-0.67	3.26
전체		3.90	0.71	1-5	-0.37	3.07
이중문화 수용태도	수용태도1	2.39	0.67	1-4	0.14	3.02
	수용태도2	3.24	0.55	1-4	-0.39	3.36
	수용태도3	3.15	0.53	1-4	-0.31	3.72
	수용태도4	2.90	0.75	1-4	-0.51	3.23
전체		2.92	0.42	1-4	0.07	3.83
진로 태도 결정성	결정성1	2.63	0.80	1-4	0.13	2.36
	결정성2	2.80	0.72	1-4	-0.19	2.88
전체		2.71	0.67	1-4	0.03	2.67

4.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지지와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정적상관($r=0.439, p<.001$), 부모 지지와 진로 태도 결정성의 관계도 정적상관($r=0.250, p<.001$), 이중문화 수용 태도와 진로 태도 결정성도 정적상관($r=0.202,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와 인구 사회학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부모 지지와 성별은 부적상관($r=-0.060, p<.05$)이 있으며, 이중문화 수용 태도와 거주지역도 부적상관($r=-0.058, p<.05$), 이중문화 수용 태도와 어머니 출신 국가는 정적상관($r=0.127,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아버지 출신 국가는 정적상관($r=0.069, p<.05$), 거주지역과 아버지 출신 국가는 부적상관($r=-0.163, p<.001$), 거주지역과 어머니 출신 국가는 정적상관($r=0.068, p<.05$), 아버지 출신 국가와 어머니 출신 국가는 부적상관($r=-0.37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변수의 상관관계 (N=1,197)

변수	1	2	3	4	5	6	7	8
1.부모 지지	1							
2.이중문화 수용태도	0.439 ***	1						
3.진로태도 결정성	0.250 ***	0.202 ***	1					
4.성별	-0.060 *	0.042	-0.019	1				
5.연령	-0.018	-0.028	-0.019	-0.010	1			
6.거주지역	0.022	-0.058 *	0.049	0.003	-0.024	1		
7.아버지 출신국가	-0.004	0.033	0.028	0.015	0.069 *	-0.163 ***	1	
8.어머니출신국가	-0.001	0.127 ***	-0.043	0.003	-0.035	0.068 *	-0.370 ***	1

* $p<.05$, *** $p<.001$

4.4 다중공선성 검증

다음으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과 공차한계(tolerance)의 통계량도 함께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분산 팽창요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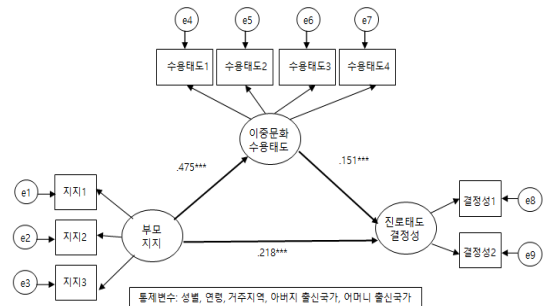
경우 1.08에서 1.28 사이로 10 이하의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 한계에서는 0.781에서 0.927로 0.1 이하로 나타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다중공선성 검증

변수	분산팽창요인(VIF)	공차한계(tolerance)
부모지지	1.28	0.781
이중문화 수용태도	1.25	0.798
진로태도 결정성	1.08	0.927

4.5 측정모형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을 살펴본 결과(그림 2)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이 $p<.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준화계수도 .424에서 .930으로 적절한 부하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수 간의 상관 계수가 .275부터 .478로 .85 이하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잠재변수에 대한 모든 측정변수가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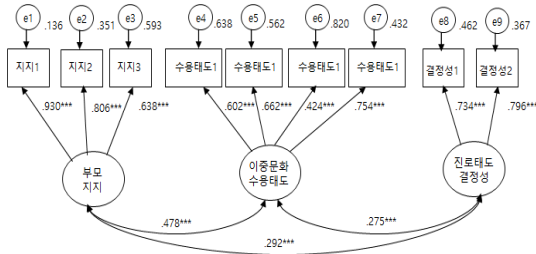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4.6 구조모형

부모 지지와 진로 태도 결정성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 적합도와 구조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모 지지가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475$, $p<.001$), 이는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B(SE)=0.059$ (0.014), $p<.001$). 둘째, 부모 지지는 진로 태도 결정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218$, $p<.001$), 이는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태도 결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B(SE)=0.173$ (0.038), $p<.001$). 셋째,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진로 태도 결정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151$, $p<.001$),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 태도가 높을수록 진로 태도 결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B(SE)=0.966$ (0.368), $p<.01$).



[그림 3] 구조모형

4.7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직접 효과 및 간접효과, 총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먼저 부모 지지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태도 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부모 지지는 진로 태도 결정성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SE)=0.173$ (0.038), $p<.001$),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진로 태도 결정성에 유의미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SE)=0.057$ (0.018), $p<.001$). 이는 부모 지지와 진로 태도 결정성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변수들의 직접 및 간접, 총 효과 검증 결과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부모 지지 → 이중문화수용태도	0.059***	-	0.059***
이중문화 수용 태도 → 진로태도결정성	0.966**	-	0.966**
부모지지 → 이중문화수용태도 → 진로태도결정성	0.173***	0.057**	0.230***

** $p<.01$, *** $p<.001$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태도 결정성을 확인하고,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모 지지가 진로 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문화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부모 지지에서는 성별과 어머니 출신 국가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 거주지역, 아버지 출신 국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 지지가 진로 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는 진로 태도 결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 지지와 진로 태도 결정성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매개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와 진로 태도 결정성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간접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함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다문화 청소년 진로와 관련한 정책적 측면의 함의는 진로 교육법과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지원계획과 진로 교육 활성화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지원이 진로 교육법에 추가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부모 지지와 이중문화 수용 태

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검증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지역사회 내 다문화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도록 하였는데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태도 결정성에 부모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검증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다문화 청소년 지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진로 교육 지원계획의 경우 교육부의 진로 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은 교육 기회 보장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 진로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관련 부서 간 서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5.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2018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결혼 이주 여성 가정 자녀인 다문화 청소년 패널 자료로 분석하였기에, 국내 다문화가정의 범주에 들어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 탈북민의 자녀, 중도 입국 자녀, 난민 자녀들까지 확대·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출신국을 고려한 이중문화 수용 태도나 진로 태도 결정성의 영향력을 간과하였지만, 어머니 출신국에 따른 비교와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한 연구와 청소년 개인의 변인 간 차이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2022), 국제결혼 이민자 수
 [2] 통계청(2022), 다문화 청소년 학업 중단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
 [3] 행정안전부(2020),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
 [4] 우안순(2020),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 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 수용 태도 및 우울감의 매개효과”,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5] 김효선(2020),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 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6] 김지선(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탈현상과 대응방안”. 원광대학교 경찰학 연구소, 경찰학 논총, Vol.7, No.2.장 화(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적응유연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7] 신종임(2010), “대학생의 부모 지지와 자아 정체감이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8] 김현철·모상현·오성배·김선희·백송이(2015),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보고서, pp. 1-332.
 [9] 최선애(2017),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성윤희, 장은영(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 결정성의 관계: 진로장벽을 통한 자존감의 조절된 매개 효과”. 진로교육 연구, 33(1), pp.43~64.
 [11] 이래혁, 이재경(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동기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55, pp.53-78.
 [12] 노충래·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Vol., No.22.
 [13] 김서정(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전략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적응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이은경(2019), “농촌 지역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부모 양육 태도, 자율적 학급풍토, 이중문화 역량, 학업탄력성과 학습몰입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 HRD
 [15] 김도연, 양정혜, 양수진(2012), “초등학교 실과교과서의 다문화 관련 내용분석”.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0, No.4.
 [16] 김충기(1999), “진로 발달 접근을 통한 진로 계획에

- 관한 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 연구, Vol. 10 No.-.
- [17] 전경숙, 임양미, 양정선, 이의정 (2010),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18] 이기학·한종철(1997), “진로태도 측정에 관한 연구 1”,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1997, No.1.
- [19] 육주홍(2019),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부모님의 진로지도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 석사.
- [20] 김영미·현안나(2020), “다문화 청소년의 맥락적 요인과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간 다집단분석”,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 Vol.0, No.49.
- [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 인 숙(Jeong In Suk)



- 2022년 02월: 신한대학교 일반대학원 남북협력행정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23년 03월~현재: 서정대학교 글로벌융합복지학부 학과장
- 관심분야: 다문화 청소년, 진로
- E-Mail: jung620610@hanmail.net